

논문접수일 : 2013.12.24

심사일 : 2014.01.03

게재확정일 : 2014.01.26

서양 회화 작품 속 깃털 장식을 활용한 아트 헤어 디자인

Art Hair Design Using Feather Decoration in Western Paintings

주저자 : 박해경

서경대학교 대학원 미용예술학과 박사과정

Park Hae-Kyoung

Seokyeo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Beauty Art, PhD program

교신저자 : 김성남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교수

Kim Sung-Nam

Professor, Department of Beauty Art, Seokyeong University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 1.2 연구의 목적

2. 이론적 배경

- 2.1 깃털을 이용한 연구와 깃털소재의 변천사
- 2.2 깃털의 정의와 종류별 특징

3. 서양회화 작품 속 깃털 장식

4. 깃털 장식을 활용한 아트 헤어 디자인

- 4.1. 향기
- 4.2. 외출
- 4.3. 회상
- 4.4. 집시
- 4.5. 날개
- 4.6 여정
- 4.7 미인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논문요약

인간의 미적욕구를 표현하는 방법은 인간생활의 시작과 함께 발생되었으며, 패션과 더불어 화장, 헤어스타일, 장신구 등의 변화와 응용을 통해 발전 해왔다. 깃털은 과거 장식적인 면과 상징성의 용도로 사회적, 종교적, 주술적 의미를 나타내었으며, 현대에는 시대의 요구와 트렌드가 제시하는 사회현상을 담아 메시지를 전하는 예술적 가치와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양 복식에 사용된 깃털의 역사와 회화 작품에 나타난 깃털 장식의 의미를 학문적으로 정립하였다. 또한 다양한 깃털 소재로 염색과 아이론(iron)¹⁾ 등을 이용한 미용학적 형태 변화와 다른 소재와의 결합을 통하여 깃털 장식을 이용한 아트헤어 작품을 디자인하고 창의성, 미학적 가치를 표현 하였다.

1) 아이론: 전류의 힘으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 헤어 다리미

이를 통하여 깃털 소재를 아트헤어라는 미용에 접목하여 실용미용에서는 충족 할 수 없었던 측면을 재조명하고 미용 산업에 창작의 범위를 넓히는 기회 제공과 아트헤어 장르에 새로운 교육 추구의 방향을 제시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깃털, 아트헤어, 회화, 창작

Abstract

With the coming of human life, humans start to seek ways to express aesthetic needs which along with fashion have witnessed advances over the years by undergoing a series of changes in and application of make-up, hairstyle, and accessories. The feather was used for a decorative and symbolic purpose, representing religious and shamanistic themes in the past, whereas in modern times, it plays a role in delivering a message with social phenomena presented by demands and trends of our time.

This study academically established a history of feather used for western costume and the implications of feather decoration appeared in art painting. In addition, it produced art hair works decorated with a feather material and expressed creative and aesthetic values by making changes such as feather dyeing and combining the feather with different materials.

This way, the study integrated a feather material into the beauty of art hair and shed new light on aspects which could not be achieved in practical beauty and it is meaningful as it provided an opportunity to expand the scope of creation and proposed a direction on the new pursuit of education in the genre of art hair.

Keyword

Feather, Art hair, Painting, Crea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미적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은 인간 생활의 시작과 함께 발생되었으며, 패션과 더불어 신체에 직접 행해지는 화장, 헤어스타일, 장신구 등을 통하여 발전해 왔다. 또한 가장 단순하고 자발적인 수준의 문화적 범주로서 그 가치 규범과 구성원을 이해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는데 Mac Gillivray와 Wilson(1997)은 외모는 사회적응, 자신만의 외적 이미지를 만들고 표현하는 자아존중감(self-esteem), 타인에게 자신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가지게 하여 자신의 가치 향상을 높이는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요소들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데, 얼굴은 개인 생김새의 특성과 전체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Hassin, Trope, 2000). 특히 얼굴과 헤어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헤어스타일은 앞서 말한 외적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필수 요건 중 하나로 현대인들은 한 가지 스타일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외적 이미지를 변화 시키고자 노력한다(안현경, 2005).

지금까지의 미용 산업 중 헤어 분야는 과거 기술 위주의 실용적인 기능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커트, 펌, 염색 등 기술을 통한 형태의 변형과 디자인의 변형을 통한 기술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정형화된 디자인을 바꾸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한 단계 더 앞서 기술 및 기술을 통한 디자인의 변화를 넘어 헤어에 다양한 오브제를 결합 하도록 유도 하였다. 다양한 재료와 장신구를 첨가하여 시각적·조각적 조형물의 형태는 단순한 기술적 가치가 아닌 감각적 표현방법에 대한 가치와 자신의 외적 이미지를 변화 시키려는 다양한 장신구의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머리장식은 머리카락이나 모자를 장식하는 액세서리로 모자의 부속품처럼 인식되기도 하였으나 코사지(Corsage), 헤어밴드, 리본, 시뇰(Chignon)²⁾, 헤어핀, 갓털, 티아라(Tiara) 등의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으로 독립적인 패션성을 가지게 되었다(박보형, 2005).

2) 뒤로 모아 틀어 올린 머리모양

1.2 연구의 목적

갓털은 다양한 소재 중에서 시대성과 문화를 표현하는 도구 및 장식품으로 많이 사용 되었으며, 현대에 와서는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과 동경의 상징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미용, 패션, 인테리어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소재로 인식되어 지면서, 염색 등의 기법과 다른 소재와의 조화를 통해 다양한 느낌과 이미지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양의 회화 작품 속에 등장하는 갓털장식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여 헤어를 미술적 측면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조명하고, 실용헤어에서 충족하지 못했던 아트디자이너 갓털의 부드러움과 다양한 칼라의 질감을 표현하여 조형성을 가미한 아트 헤어 디자인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미적 가치와 갓털장식의 실용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갓털을 이용한 연구와 갓털 소재의 변천사

지금까지 헤어를 비롯한 미용 분야의 갓털 장식을 이용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지만 패션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박보형(2004)은 타조갓털의 공예기법을 응용하여 복식에 적용한 연구를 발표한 바가 있으며, 조희정(2007)은 갓털을 자연의 표상물로 인식하고 공간적인 표현의 미시적 관점에서 갓털 표현을 연구 하였으며, 이윤지(1996)는 mirror의 이미지를 갓털과의 조화를 이루어 복식에 응용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영은(2013)은 공작새 갓털을 이용하여 색채를 분석하고 섬유작품에 적용한 연구를 시도한 바 있다.

서양의 복식역사에 나타난 헤어의 갓털 사용은 장신구의 의미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장신구를 통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지위, 상징성, 부유함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타조의 갓털을 정의의 상징으로 생각했으며, 파라오들은 여행시 타조의 갓털로 만든 커다란 부채로 햇볕을 가리고 여행을

하였다. 13세기에는 기사들의 장식물로 애용 되었고 15세기의 남자들은 챙이 없는 슈가로프 햇(sugar loaf hat) 이나 챙이 좁은 것, 챙이 넓은 모자를 썼는데 모자에 타조깃털을 꽂는 것이 유행이었으며, 귀부인들은 16세기에 이르러서야 깃털을 장식물로 이용하였다 (신상옥 1997; 임일규 2002).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중세 시대의 경우 깃털 세공인의 공예가 파리 역사에 내재되어 있으며, 깃털 세공기술은 모자와 관계가 깊다. 깃털 세공인들은 '공작모자 세공인 연합' 내부에서 재능을 발휘했는데 1599년부터 깃털 세공가, 깃털장식가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고, 모두 수작업으로 깃털 공예가 이루어졌다. 깃털 세공인들은 깃털다발과 화환장식을 마차의 장식과 기마의 퍼레이드 장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다(Marie Simson. Jean Bernad nardin, Lydia Fasoli, 1996).

고전과 시대인 18세기 말 부터는 25명의 깃털 세공 장인들이 파리에서 활동했으며, 그들의 명성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1776년에 깃털 세공 장인들은 꽃을 만드는 사람들, 의류상들과 연합하였으며, 오늘날 꽃 장식 작업실과 깃털 작업실은 같은 건물에 위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깃털은 여름에는 덜 선호되지만 꽃수공업과 함께 서로 보완되어 지면서 변화를 하였다. 18세기까지도 깃털은 사람들의 장식적 전유물로 루이 14세 이래 18세기 말까지 깃털에 대한 열광은 깃털 장식 때문에 의상의 디자인을 바꿀 정도였다.

19세기 낭만과를 지나 근대시대에 까지 깃털에 대한 인기는 매우 높았으며, 왕정복고시대대의 부인용 모자는 천국의 새로 알려진 '극락조'로 장식되었다. 깃털은 모자를 장식하는 단순한 요소가 아니라, 겨울에는 깃털 없이는 결코 겨울 느낌이 나지 않는 무도회의 중요한 머리장식 이었다.

깃털 사용의 전성기는 벨 에포크(Belle Epoque) 시기라 할 수 있는데 남아프리카의 농장에서 타조 육성에 성공하면서 좀처럼 입수할 수 없는 귀중품으로 동경의 대상이었던 타조깃털이 갑자기 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모자에 타조깃털을 달고 바람이 흔들리는 차림이 대유행하게 되었으며, 누구의 목에나 타조 깃털의 보아³⁾가 둘러지게 되었다(김창준, 1992). 행사나 가든파티에 가기 위해서는 풍성한 꽃과 깃털이 있는 우아한

3) 여성용 모피 또는 깃털로 만든 목도리

모자를 썼으며, 큰 무도회를 위해서는 왕관과 보석 세공품과 함께 깃털장식, 꽃, 벨벳리본을 달았다. 1880년에는 파리에 깃털 수공점(Le plumassier)이 생겼으며 지금까지도 이 Lemarie house는 대를 이어 파리 오프꾸뎀와 프레따 포리테에서 발표되는 깃털 의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1960년대 이전의 현대시대는 제 1차 세계대전과 자동차의 발달로 깃털은 사양길을 걷게 되었다. 깃털은 종 모양의 모자인 크로쉬 위에 눈에 띄지 않게 사용되었고, 모피 목도리, 부채 등에 사용되었다. 1930~1940년대에 타조깃털은 모자와 칼라 깃에서 다시 나타났는데 작은 깃털이 모여져서 카테일파티 모자가 되었으며, 이 모자는 60년대의 깃털의 새로운 시작이라 할 수 있다(김창준, 1992; 임일규, 2002).

1960~1980년대는 전통적인 의상개념에서 탈피하려는 아트 웨어의 움직임으로 작가들에 의해 깃털공예는 새롭게 연구되어지고 부활되었다.

대표적으로 Raoul, Joan Ann Jablow, Eliot Smith, Bill Cunningham 등의 작가는 새의 깃털을 이용한 의복 및 모자, 장식품 제작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오프꾸뎀 디자이너들이 파리의 깃털 수공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나타나듯이 깃털은 중요한 소재로 인식되었다(Richard, Harold, 1995; Julie Schafler Dale, 1986; 김은리, 1992).

1990년대는 디지털 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시대로 사람들은 자아상실이라는 소외감을 경험하게 되어 자연으로의 회귀본능과 동경으로 깃털 소재는 꾸준히 발전되었다(박보형, 2005)

2.2. 깃털의 정의와 종류별 특징

깃털(Feather)은 조류의 몸 표면을 덮고 있는 털로서, 깃이라고도 한다. 피부에서 생기는 케라틴(Keratin)질의 보호기관으로 짐승의 털이나 파충류의 비늘과 발생학상의 기원은 같으며, 공기의 층을 만들어 체온을 보존하고 몸의 비중을 가볍게 하여 공중과 수중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

깃털을 형태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거의 무게가 없을 정도로 가벼우며 가운데 단단한 깃털축이 있고 깃털 축을 중심으로 양쪽에는 깃 판이 있다. 깃털가지는 갈고리 형태로 되어있으며, 서로 엉켜서 깃털의 모습을 유지하게 된다. 깃은 화학적인

색소와 깃털의 물리적인 미세구조에 의한 반사광택에 의하여 여러 가지 빛깔을 나타내게 되는데 멜라닌에 의해 황색에서 흑색에 이르는 색을 나타내고 카로티노이드에 의하여 황색, 적색, 광택성인 청색 등은 깃털의 미세한 기포에 의해 생기는 빛의 간섭에 의하여 나타난다. 대부분의 색소는 자연광선의 영향으로 변색되기 때문에 낡은 표본은 멜라닌 색소의 퇴색으로 갈색으로 변하며, 환경에 적응하는 현에 의해서도 독특하게 변화되기도 한다.

깃털의 수는 새의 체격이나 종류 및 계에 따라 다르지만 소형조류는 대체로 4,600~11,000개, 대형조류는 20,000개 전후이다(두산 세계 대백과 사전, 2002, pp.414).

소재로 주로 사용되는 깃털은 타조, 꿩, 오리, 닭, 공작, 백조, 왜가리, 독수리, 극락조, 앵무새 등의 깃털로 같은 새의 깃털이라도 나 있는 부분에 따라 색깔이나 질이 다르므로 꽂지, 가슴, 허리, 등, 목 등으로 구분하여 용도에 맞추어 사용한다. 깃털은 줍이 쓸기 쉽고 털이 빠지기 쉬우므로 보관 할 때나 사용 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타조깃털은 다른 조류의 털과는 달리 깃대를 중심으로 붙어있는 털(날개, 몸통, 배, 다리, 목) 모든 가닥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있어 보온력이 뛰어나고 부드러우며 아름답다. 깃털의 형태 및 용도에 따라 광범위한 가격으로 팔리고 있으며, 최고급 깃털은 목도리, 스톨, 가방 제조, 모자에 사용된다. 또한 타조깃털은 반도체 먼지떨이 및 고급 승용차 먼지떨이 등 산업용으로도 사용된다. 특히 타조의 털로 만들어진 제품은 오리나 거위 털로 만들어진 제품보다 보온력이 뛰어나며 정전기가 적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이희훈, 1998, pp.174-175).

꿩은 수꿩을 장끼라 하며 털의 깃이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털의 빛깔이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암꿩은 까투리라 하며 수꿩에 비해 털빛이 화려하지는 않으나 독특한 무늬를 지니고 있다. 꿩은 상서로운 동물로 예로부터 마을의 깃발이나 무당이 굿할 때 쓰는 모자에도 꿩의 깃을 사용하였으며, 무당은 신과 교섭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이기에 꿩 깃으로 머리를 장식하였다. 꿩은 우리의 신화, 무속, 민속, 풍습에 등장하여 영광스러움, 상서로움, 진기한

것, 길상을 상징, 서조로써 대접받아 왔다.

오리는 집오리와 청둥오리의 깃털이 주로 사용되는데 집오리의 경우 백, 흑, 암갈색, 회청색 등 색상이 다양하다. 자연 발생적인 무늬는 섬유의 텍스타일 디자인에 응용되며, 무늬 자체에 자연스러움이 배어 있다. 청둥오리는 날개깃은 청자색을 띠며 그 밖의 깃털 전체에 잔잔한 회백색의 대리석무늬가 있어 자연적인 색상의 아름다움이 특징이다. (정영주, 1996). (Table 1).

			
닭의 깃털	타조 깃털	기러기 깃털	공작 깃털
			
십자매 깃털	오리 깃털	닭 깃털	닭 깃털
			
십자매 깃털	기러기 깃털	타조 깃털	공작 깃털

[Table 1.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깃털의 종류]

3. 서양회화 작품 속 깃털 장식

예술에 있어서 미술은 조형적·시각적 예술로서 그 존재는 인간의 출현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눈에 비치는 세계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종교관, 문화적 특성 등을 반영하기도 한다. 서양회화 속에 깃털을 소재로 표현한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고갱의 <부채를 든 여인>은 단순 형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생동감 있는 빛깔로 빨간 머리의 연인과 흰 부채의 색상 조화를 표현하였다.

렘브란트의 부인 사스키아를 모델로 그려진 <깃털장식 달린 모자를 쓰고 미소 짓는 사스키아>는 모자로 인하여 얼굴에 그림자가 진 초상화로 빛을 이용한 풍부한 색채와 명암 배분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프랑수아카생, 2005; 시공사, 200

5).

<말 위에 올라탄 프레데릭 리헬>은 깃털이 달린 모자와 의복을 입고 말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미켈란젤로 메리시의 <집시>로 있는 본 모습 그대로를 그린 작품으로 모자의 깃털 장식을 비롯한 인물들의 표정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양리아트아세오, 2005).

카라바조의 <성 마테오의 순교>는 빛과 그림자의 강한 대비가 특징이며, 캐틀린의 <소크족 추장 케오쿠스>는 인디언 추장의 모습을 통하여 인디언의 일상생활을 나타내었다. 특히, 무기나 의복, 깃털 장식의 색상과 디자인의 조화로우움을 표현하여 가죽, 깃털, 나무 등의 재료를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아멜리아 아네스, 2002; 필리프자경, 2005).

랭부르 형제의 <베리공작의 호사스런 시>는 중세시대의 아름다움을 잘 나타낸 작품으로 채색 및 머리카락 염색, 피부톤 등의 미용적인 표현이 잘 나타나있으며, 머리 장식에 사용된 깃털 색상과 의상의 화려함을 표현하였다. 루커스 발켄보르크의 <온천에 요양하는 루돌프 2세>는 그 당시 유행 하였던 남성들의 화장 기법과 의상의 깃털 등 장신구를 이용한 화려함을 나타내고 있다.

마티스의 <하얀 깃털>은 깃털 소재를 이용하여 화려함과 부드러움을 표현하였으며, 모델 앙투아네트가 쓰고 있는 모자는 마티스 자신이 밀짚모자에 깃털과 리본을 편으로 꽂아 만든 것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가벼운 선의 아라베스크가 그림 전체에 행복감을 덮어씌우고 있다.

앵그르의 <오달리스크>의 경우 오달리스크란 터키 궁전의 밀실에서 왕의 관능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기하는 궁녀들을 지칭하는데 등을 돌리고 깃털장식의 부채를 들고 길게 누워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단테의 <깃털 모자를 쓴 여인>은 명랑하고 리듬에 맞추어 춤추고 있는 듯 경쾌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으나, 속도감으로 깃털 등의 형체가 잘 표현 되지 못하였다는 단점이 있다.

피카소의 <새>는 백색 도기에 화장토로 앉아 있는 새의 옆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색깔과 형상을 단순하게 나타내면서도 눈·날개·다리·깃털 등의 모습이 살아 있어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만 같은 것이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표 2].

깃털을 소재로 한 회화 작품은 주로 모자의 장

식과 소품 등에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헤어 및 신체와의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와 조화로운 인물의 묘사 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고갱 <부채를 든 여인>	렘브란트<깃털장식 달린 모자를 쓰고 미소짓는 사스키아>	렘브란트 <말 위에 프레데릭 리헬>	미켈란젤로 메리시 <집시>
			
카라바조 <성 마테오의 순교 중 일부>	캐틀린 <소크족 추장 케오쿠스>	랭부르 형제 <베리공작의 호사스런 시>	루커스 발켄보르크 <온천에 요양하는 루돌프 2세>
			
마티스 <하얀 깃털>	앵그르 <오달리스크>	단테 <깃털 모자를 쓴 여인>	피카소 <새>

출처 : 시공사, 2005 『시공디스커버리』

[Table 2. 서양 회화 작품속의 깃털 장식표현]

4. 깃털 장식을 활용한 아트헤어디자인

소재 깃털을 미용 분야에 적용하고 재조명하기 위하여 직접 헤어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깃털 색상과 조형성, 면과 선, 질감의 아름다움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으며, 디자인 의도를 잘 반영하도록 제작하였다.

4.1. 향기

아트헤어디자인 ‘향기’는 폴과 장 드 랭부르가 1410년경 작품을 제작한 ‘베리 공작의 매우 풍요로운 시절’ 중 ‘5월 아가씨(May Queen)’를 배경으로 제작하였다.

5월의 아가씨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작품 속 인

물의 의복에서 나타나는 파랑색과 원색의 색상 표현이 봄의 꽃향기를 연상하게 하였다.

현대인들이 바쁜 삶으로 인하여 삭막해져 가는 갈등과 회의를 희망과 행복을 주는 향기로 표현하였다.

제작과정은 두상위에 뾰뚱한 망사를 디자인 하여 형태를 만들고 깃털을 망사 위에 고정, 이미 디자인한 형태이기 때문에 깃털이 빠지지 않도록 하고, 망사로 형태를 만들 때는 동선을 넣어서 구부리고 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만든 형태는 두상위에 실리콘으로 접착 하였다. (Table 3).

	
폴과 장 드 랭부르(1410) - 베리 공작의 매우 풍요로운 시절	아트헤어디자인: 향기
제작과정	
	좌측면 
	우측면 
의도	현대인들의 바쁜 삶 속에 여유, 아름다운 향기
색	보라,노랑,주황,녹색,파랑
깃털종류	닭 깃털 

[Table 3. 아트헤어디자인: 향기]

4.2. 외출

아트헤어디자인 '외출'은 단테-루오가 20세기 전반

에 그린 '깃털 모자를 쓴 여인'을 배경으로 제작하였다.

이 작품은 수채화로 표현되었으며, 필치의 속도감과 푸른색의 조화가 경쾌한 멋을 느끼게 해준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외출을 준비하는 설레임을 초록빛의 수채화와 초록 깃털의 자유로움을 연상하며 작품을 표현하였다.

제작과정은 그린 색의 망사를 디자인하여 먼저 형태를 만들고 두상 위에 만들어 놓은 형태를 실리콘으로 접착한다. 형태대로 깃털을 세심하게 고정하면서 깃털이 뭉쳐서 형태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포인트를 주기 위해 목선에 비즈를 실리콘으로 접착하여 간결하고 시원함을 느끼게 하였다. (Table 4).

	
단테-루오(20세기 전반) - 깃털 모자를 쓴 여인	아트헤어디자인: 외출
제작과정	
	좌측면 
	우측면 
의도	시간과 공간의 활용, 휴식의 탈출구
색	초록
깃털종류	십자매 깃털 

[Table 4. 아트헤어디자인: 외출]

4.3. 회상

아트헤어디자인 '회상'은 마티스가 1919년에 그린 '하얀 깃털'을 배경으로 제작하였다.

이 작품은 흰색의 배경으로 하얀 깃털 모자를 쓴 여인의 깊은 표정이 인상적이다.

하얀깃털의 풍성함이 회상에 잠기는 모습으로 지난 간 일들에 대한 그리움이나 기억을 연상하여 회상으로 작품을 표현하였다.

제작과정은 먼저 하얀 링 모양대로 솜깃털을 실리콘으로 접착한 후, 형태를 만들어 두상의 사이드 및 정수리 부분에 실리콘을 이용해 접착한다. (Table 5).

			
마티스(1919) - 하얀깃털		아트헤어디자인: 회상	
제작과정			
	좌측면		
	우측면		
의도	추억, 그리움, 회상		
색	흰색, 연보라색		
깃털종류	닭 깃털, 타조 깃털		

[Table 5. 아트헤어디자인: 회상]

4.4. 집시

아트헤어디자인 '집시'는 미켈란젤로 메리시의 카라바조의 비밀 중 '집시'를 배경으로 제작하였다.

이 작품은 금색의 의복과 흰 깃털 장식의 모자가 시대적 생활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갈

색과 황토색의 배경이 집시 연인과 귀족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현해주고 있다.

이에 집시의 자유를 동경하며 귀족의 모습을 붉은 깃털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귀족이 쓰고 있는 모자의 깃털 장식을 두상앞쪽 부분에 회색 깃털을 응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과정은 잘 구부러지는 동선을 망사에 엮어서 형태를 완성하여 두상 위에 씌워 고정하였다. 망사에 잘 구부러지는 동선으로 엮었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이든 원하는 대로 형태를 연출할 수 있다. 디자인 되어진 형태 위에 빨간색상의 깃털을 망사 사이에 끼워 고정하거나 실리콘으로 접착한 후 같은 방법을 반복하였다. 비즈와 포인트 칼라의 깃털은 실리콘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미 고정되어 있는 깃털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깃털사이에 끼워 고정하였다. (Table 6).

			
미켈란젤로 메리시(1594) - 집시		아트헤어디자인: 집시	
제작과정			
	좌측면		
	우측면		
의도	자유분방함, 자유		
색	빨강, 회색		
깃털종류	십자매 깃털		

[Table 6. 아트헤어디자인: 집시]

4.5. 날개

아트헤어디자인 '날개'는 앵그르가 1814년 그린 '오달리스크'를 배경으로 제작하였다.

오달리스크란 터키 궁전 밀실에서 왕의 관능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기하는 궁녀들을 지칭하는데 여인을 선적인 음률로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이다.

궁에 갇힌 오달리스크와 대비되는 초록 커튼을 날개에 비유하여 자유로운 날개를 달아주고자 본 작품을 제작하였다.

제작과정은 부직포를 이용하여 두상에 맞는 토대를 만들어 실리콘으로 두상에 접착하였고 토대 위에 공작 깃털을 디자인하여 가위로 자른 다음 실리콘으로 접착하였다. 대각선을 이루며 대각선의 느낌이 나도록 깃털의 화려한 무늬가 보이도록 하얀 깃털을 공작 깃털 사이로 보이도록 접착하였다. (Table 7).

			
앵그르(1814) - 오달리스크		아트헤어디자인: 날개	
제작과정			
		좌측면 	우측면 
의도	아름다움의 본질		
색	카키, 흰색		
깃털종류	공작 깃털		

[Table 7. 아트헤어디자인: 날개]

4.6. 여정

아트헤어디자인 '여정'는 피카소가 1947년 도자기에 그린 '새'를 배경으로 제작하였다.

하얀 도자기에 푸른빛과 검은 부리의 선명한 표현을 긴 여정을 준비하는 새의 모습을 떠올리며 유기적인 곡선의 아름다움을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나타내고자 했다.

제작과정은 지름 3cm의 링을 100cm의 길이로 자른 후 링을 감싸듯이 타원형의 형태를 만들어 두상 위에 실리콘으로 접착한다. 정수리 부분은 링의 길이를 디자인한 형태에 맞게 제작하고 흑색칼라의 깃털로 포인트를 주었다. (Table 8).

			
피카소(1947) - 새		아트헤어디자인: 여정	
제작과정			
		좌측면 	우측면 
의도	삶의 쉼터		
색	흰색, 검정색		
깃털종류	오리 깃털, 타조 깃털	 	

[Table 8. 아트헤어디자인: 여정]

4.7. 미인

아트헤어디자인 '미인'는 고갱인 1902년에 그린 '부채를 든 사랑스러운 여인'을 배경으로 제작하였다.

하푸아니아의 아내 토호타우의 사진을 보고 그린 이 작품은 슬프고 우울한 표정의 여인이 부채와 흰 의복으로 인하여 더욱 아름답게 표현되어 본 작품에서는 밝은 느낌의 표현하고자 다양한 색상의 깃털을 사용하였다.

제작과정은 도화지를 타원형의 모양을 만들고 폴로 붙인 후 색 도화지 모양대로 두상위에 깃털을 실리콘으로 고정한다. 깃털이 겹쳐지지 않도록 방향을 사선으로 접착하여야 깃털끼리 영키지 않으며, 칼라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Table 9).

	
고갱(1902) - 부채를 든 사랑스러운 여인	아트헤어디자인: 미인
제작과정	
	좌측면 
	우측면 
의도	소망, 아름다움
색	빨강, 흰, 주황, 파랑, 초록, 보라, 아이보리, 노랑, 연두색
깃털종류	오리깃털, 닭깃털  

[Table 9. 아트헤어디자인: 미인]

5. 결론 및 제언

인간의 미적욕구를 표현하는 방법은 의식주를 포함한 생활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외적인 아름다움의 추구를 위하여 패션, 화장, 헤어스타일, 장신구 등의 변화와 응용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중 깃털은 과거 장식적인 면과 상징성의 용도와 사회적, 종교의 주술적 의미로 인식되었으나 현대에는 시대적 요구와 트렌드가 제시하는 사회현상을 담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양 회화 작품 속에 사용된 깃털의 역사와 장식의 의미를 학문적으로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깃털을 염색과 아이론(iron) 등을 이용하여 색상과 형태의 변화 및 다른 소재와의 결합을 통하여 깃털장식 아트헤어 디자인 개발을 시도하여 창의성, 미학적 가치를 표현하였다. 또한 깃털 소재를 아트헤어라는 미용에 접목하여 실용 미용에서는 충족 할 수 없었던 측면을 재조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깃털이라는 소재 자체의 사용가능성 뿐만 아니라 변형과 응용을 통하여 안정적인 변화와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미용 산업에 창작의 범위를 넓히는 기획의 제공과 아트헤어 장르에 새로운 교육 추구 방향과 깃털장식의 실용미를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가연 (2003). 「헤어디자인의 형태 도출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리 (1982). 「Haute Couture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창준 (1992). 『패션의 역사 2』. 서울 : 도서출판 라사라.
- 박보형 (2005). 「타조깃털 공예기법을 응용한 복식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성은 (2004). 「장식적 소재를 이용한 새의 표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상옥 (1997). 『서양 복식사』. 서울 : 수학사.

- 안현경 (2005). 「헤어스타일 연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엄성래 (2013). 헤어피스를 활용한 꽃의 이미지 헤어핀 제작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315-322.
- 엄윤경 (1994). 「인디언 민속의상의 수술장식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선애 (2001). 「스포츠 룩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숙 (1990). 샤넬스타일의 변천과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 학회』, 3(2). 139-148.
- 이순자 (2004). 「인조 DOWN을 이용한 패션 디자인 작품 개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영은 (2013). 「공작새 깃털의 색채분석과 섬유작품 적용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윤지 (1996). 「MIRROR의 이미지를 응용한 복식 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정희 (1999). 「오브제 표현을 응용한 복식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희훈. (1998). 『타조시대』. 서울 : 특수수산.
- 임일규. (2002). 『실제적인 타조교육』. 서울 : 아힘.
- 장남경 (1993). 「오브제의 조형성을 응용한 복식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주 (1996). 「나무와 깃털을 주제로 한 섬유조형 작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은숙 (1995). 도나 카란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26, 265-278.
- 조규화 (1994). 한국패션산업의 유통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8, 574-590.
- 조희정 (2007). 「미시적 관점으로 본 깃털 표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선덕 (2006). 「20세기 중·후반기 서구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트렌드 분석」,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도미니크 파케 (2005). 『화장술의 역사-거울아. 거울아』. 서울 : 시공사.
- 두산동아 백과사전 연구소 (2002). 『두산 세계 대백과 사전』. 서울 : 도서출판 두산동아.
- 사사키 켄이치 (2002). 『미학사전』. 서울 : 동문선.
- 아멜리아 아네스.. (2002) 『명화는 왜 유명할까』. 서울 : 다빈치.
- 앙리에트 아세오 (2005). 『집시-유럽의 운명』. 서울 : 시공사.
- 파스칼 보나푸 (2005). 『렘브란트-빛과 혼의 화가』. 서울 : 시공사.
- 프랑수아 카생 (2005). 『고갱-고귀한 야만인 시공디스커버리』. 서울 : 시공사.
- 필리프 자갱 (2005). 『아메리카 인디언의 땅』. 서울 : 시공사.
- Hassin. R. & Trope. Y. (2000). Fashion Faces: Studies on the Cognitive Aspects of Physiognom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 Julie Schafler Dale. (1986). Art to Wear. (Abbeville Press. Inc), 138-150.
- Mac Gillivray & Wilson (1997). Clothing and appearance among early middle and late adolescent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5(1), 43-49.
- Marie Simson. Jean Bernad naudin. Lydia Fasoli. (1996). *Les Metiers de L'elegance*. (Edition chene), 27.
- Richard martin. Harold koda. (1995). HAUTE COUTURE. (MMA/ABRAMS), 104.

